

# 여야, 내년 예산안 607조 잠정 합의

소상공인 손실보상 30만원 이상 지역화폐 발행 확대 추가 논의 2년 연속 법정 시한 내 처리

여야가 정부가 편성한 604조원에서 3조원가량 순증한 총 607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잠정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은 1일 오후 국회에서 예산 협의 회동을 진행해 이같이 합의했다. 이 회의에 참석한 핵심 관계자는 "총지출은 정부

제출안보다 3조원가량 확대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2년 연속으로 예산이 애초 정부안보다 순증하게 됐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코로나로 인해 경영 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세정 지원 효과를 고려해 세입예산은 4조원 이상 수준의 증액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재정지출 우선순위 조정을 통해 세출예산은 5조원 이상 수준으로 감액키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세입 예산 변동에 따라 법상 의무 반영하는 2조원대 교부세, 국제발행 축소분을 제외한 나머지 재원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에 대한 저리 금융 지원 등 맞춤형 지원확충, 방역상황을 고려한 방역 의료 예산 보강, 농어민 보육 취약

계층 등 민생 현안 지원에 우선 활용하기로 여야 간에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구체적 증액 소요는 여야 간사 간 추가 협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최대 쟁점이었던 지역화폐는 여야가 요구하는 올해 수준(21조원) 이상을 발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해 추가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30만원 이상으로 하지는데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는 2일 본회의를 개의해 예산안과 17개 세입예산 부수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법정 시한(12월 2일) 이내에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될 전망이다. /연합뉴스

# 윤석열 새시대준비위원회 밑그림 공개

### '진상배달본부' '간부찾기본부' 구성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외연 확장을 위해 선대위와 별도 조직으로 출범 준비 중인 새시대준비위원회의 밑그림이 1일 공개됐다. 김한길 전 민주당 대표를 위원장으로 하는 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참여할 분들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우선 '진상(真相)배달본부'와 '간부찾기본부'로 구성됐다. 진상배달본부는 윤 후보의 생각을 유튜브,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모바일 웹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 유권자들에게 '배달'하는 역할을 맡는다.

아울러 간부찾기본부는 정권 교체를 바라는 이들이 온·오프라인에서 '간부'를 찾고 소통하는 일을 지원한다. 윤 후보도 직접 사회 곳곳에서 의미 있는 일을 하는 이들을 찾아 나설 계획이다. 위원회 측은 "윤 후보가 이미 밝힌 바와 같이 정권 교체에 열망하면서도 당장 국민의힘과 함께하기를 주저하는 중도와 합리적 진보, 2030 세대 등이 모두 플랫폼"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윤 후보와 김 위원장은 위원회의 구체적인 조직과 인선에 대해 현재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위원회는 2일 홈페이지를 개설해 구성원을 모집할 계획이다. 신청자는 자유 양식의 자기소개서를 제출하면 된다. /연합뉴스

# '당무 보이콧' 이준석, 부산 찍고 순천행...野 대혼돈

### 오늘 선대위 회의 취소 가능성

공식 입장을 전면 취소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1일 비공개 지방 행보를 이틀째 이어갔다. 선대위 구성 이견에 '패싱 논란'까지 더해지며 윤석열 대선 후보와 이 대표의 갈등이 좀처럼 출구를 찾지 못하는 모습이다. 당내 파열음이 연일 공개적으로 표출되면서 내부 위기감도 높아지고 있다. 이 대표는 전날 부산에서 1박을 한 데 이어 이날 오후 전남 순천을 찾았다. 영호남을 횡단하며 광복 동선을 그려간 것이다. 이 대표는 이틀째 휴대전화 전원을 끄고 언론과의 접촉을 피했지만, 측근과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시간차를 두고 동선이 공개되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부산 사상구의 정제원 의원 사무실을 방문해 당직자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당 대표 보좌역을 통해 이 내용을 언론에 공개했다. 장 의원은 윤 후보의 핵심 측근으로서 최근 이 대표와 공개적으로 각을 세웠다. 이 때문에 이 대표의 방문이 장 의원을 우회적으로 저격하기 위한 의도된 행보 아니겠냐는 해석을 낳았다. 이 대표는 전날 밤에는 해운대에서 정의화 전 국회의장을 만나 선대위 인선 등에 대한 고민을 털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의 '잠행 야인 잠행'은 수일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현재로서는 상경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오는 2일 오전 예정된 선대위 회의 및 최고위원회의 참석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일각에선 회의 일정 자체가 취소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윤 후보는 이날 충남 천안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에 대해 "당에서 듣기로는 당무를 거부하는 상태도 아니다"라며 "좀 리프레시(재충전)하기 위해(지역)에 간 것 같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이 대표에게 무리하게 연락하지 않겠다"라고도 언급했다. 윤 후보와 이 대표가 강대강 대치를 이어갈 경우 이 대표의 '당무 보이콧' 상황이 장기화할 수도 있다. 당내에서는 위기감이 증폭되는 분위기다. 김기현 원내대표와 정진석 국회부의장, 주호영 권역세권위원회 위원장 등 주요 중진 의원들은 전날에 이어 이날 오후에도 회의를 갖고 대응책을 논의했다. 윤 후보의 리더십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지적과 함께 이 대표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국민의힘 김병준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지금 당 대표가 가장 열심히 해야 할 일이 선거에 이기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원외위원장 협의회 소속 원외위원장이 1일 경기도 양평군 공흥지구 앞에서 '윤석열 처가의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관련 수사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 민주 '윤석열 52시간제 철폐' 발언 비판

### 처가 공흥지구 특혜의혹 부각도

더불어민주당은 1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52시간제 철폐' 발언을 비판하고 처가 의혹을 부각했다. 민주당 박용진 공동선대위원장은 이날 SNS를 통해 '가정이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질 윤석열 후보의 독선적 노동 인식을 규탄한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박 위원장은 "윤 후보가 어제는 '주52시간제와 최저시급제는 이해관계자에게 묻지 않은 탁상공론으로 비현실적'이라며 정권을 잡으면 (주52시간제)를 철폐하겠다고 말했다"며 "주 120시간 노동 발언으로 국민 역할을 무너지게 해놓고 연이어 무

지한 반(反)노동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비판을 직면하고도 고집을 꺾지 않는 것이 바로 독선"이라며 "심지어는 실상을 알고도 하지 않는 게으름이 황당할 따름"이라고 쓰아붙였다. 민주당 원외위원장 협의회는 이날 윤 후보 처가의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을 재차 제기하며 검찰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들은 보도자료를 내고 "갑수목 가관이다. 경악스러운 일"이라며 "윤석열 일가의 패밀리 비즈니스를 보면 마치 수감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의 '비즈니스 프렌들리'가 생각난다"고 했다. 또 "가카(이 전 대통령)가 국가를 수익모델로 삼으려는 세상이 다시 오는 것 아닌가 걱정된

다"며 "양평 공흥지구 공공개발이 양평군의 반대로 무산되는 과정에 윤석열 후보 처가의 개인 여부 등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준석 대표의 잠적으로 극대화된 국민의힘 내용도 함께 비판했다. 안민석 의원은 YTN 라디오에 나와 "이 대표가 마치 몽니를 부리는 것 같지만 오죽했으면 당 대표가 이런 식의 저항이나 반격을 할까, 이걸 좀 유심히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열린민주당의 김의겸 의원은 이날 SNS에 2016년에 있었던 이른바 '육새 파동'을 소환, 국민의힘의 상황을 비판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5년 전에는 '육새 들고 나르샤' 이번에는 '비단 주머니 남기고 나르샤'라며 "윤석열, 뭐 하신다? 비단 주머니 받고 그리 좋아하시더니"라고 비꼬았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 심상정-안철수, 이르면 3일 회동...제3지대 시동

### 양당 체제 종식·쌍특검 논의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이르면 3일 만나 제 3지대 공조에 박차를 가한다. 정의당 관계자는 1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오는 3일이나 5일에 두 후보가 만나는 것으로 실무협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심 후보는 지난달 22일 "오늘부터 제 3지대의 공조를 시작하겠다"면서 "첫 만남은 안철수 후보에게 제안한다. 이른 시일 내 조건 없이 만나 양당 체제 종식을 위한 연대를 포함, 다양한 의견이 교환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 심 후보와 안 후보는 이번 회동에서 양당 체제 종

식을 위한 정치개혁 과제와 함께 쌍특검(대장동·고발사주 의혹에 대한 특검) 도입을 논의할 예정이다. 거대 양당이 번갈아 집권하는 현 상황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결선투표제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필요성에 대한 대화가 오갈 가능성이 크다. 두 후보는 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사법적 리스크를 부각하며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향해 특검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할 계획이다. 심 후보는 민주당이 후보의 대장동 의혹, 국민의힘 윤 후보의 대장동 대출 수사 무마 의혹 모두에 특검을 도입해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심 후보 측은 이 회동 결과를 토대로 야권의 김동원 후보와의 만남도 추진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b>상가매매 (상무지구)</b>	<b>장성 토지(매매 분양)</b>
6, 7층 (140평)분양[중심상업지구] 감정가(시세) -> 9억 급매가 -> 5억8천 (보 3천 월 300, 용 3억5천)	광주에서 20분(6M도로접) 장성댐 (호) 2분, 장성 IC. 5분 총 1760평 (150평, 200평, 500평, 분할가능) (전원주택,물류창고,주말농장,별장,투자적합)
1) 6층(80평 분양) 감정가(시세) -> 6억 (보2천,월200) 급매가 -> 4억 5천 2) 7층(60평 분양) 감정가(시세) -> 4억 (보1천,월100) 급매가 -> 2억 5천 (사무실 리모델링함, 빠, 유흥, 모든업종가능 즉시입주 시비없음)	010-6670-9800
010-6670-9800	010-6670-9800

# 꼭! 받아야 할 돈 회수

※ **일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받으신 건 맡겨주십시오!**  
**새로운 방법으로 저희는 추심합니다.**  
**23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 절대 수수료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 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 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24시간 상담가능**

**중앙신용정보** 직통전화 062)521-4109  
 010-2860-4700